

2019-20년 지역 여성노동자 증감현황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1. 11. 29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경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1 팩스: 02-2670-9299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1
1. 분석 목적과 내용 구성	6
2. 분석 결과	6
1) 경제활동인구율, 고용률, 실업률	6
2) 연령별 고용률과 실업률	12
3)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	17
4) 산업별 노동자	21
5) 직업별 노동자	25
6) 주당 노동시간	28
7) 최저임금 준수	30
3. 나가며	31

요약

○ 이 보고서는 민주노총이 지역의 여성노동자 고용 규모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작성함. 지역 범위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함. 지역의 여성노동자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는 우리나라에서 광역시도와 시군구별 노동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임.

지역의 여성노동자 규모 변화는 노동위기가 발생한 코로나19 시기인 2019년과 2020년의 성별 임금노동자 증감 현황을 중심으로 전국 여성노동자 증감률과 비교하여 분석함. 분석 내용은 성별로 경제활동인구율·고용률·실업률 등의 노동지표, 연령별 고용률과 실업률,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별 현황, 산업·직업별 노동자 현황, 주당 노동시간, 최저임금 준수 현황 등을 분석함.

○ 분석 결과 : 2019-20년 지역 여성노동자 증감현황

〈경제활동인구율, 고용률, 실업률〉

- 2019년과 2020년의 여성 경제활동인구 수는 2019년 12,248천명에서 2020년 12,056천명으로 1.6% 감소하여 남성의 2019년 16,125천명에서 2020년 16,060천명으로 0.4% 감소한 것보다 크게 감소함. 전국 여성 경제활동인구 수 감소율보다 크게 감소한 곳은 울산, 부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순으로 6개 지역이고,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곳은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북, 전남 6개 지역으로 나타남. 남성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감소율이 큰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8개이고, 남성과 여성 모두 전국 성별 감소율보다 큰 지역은 부산, 강원, 제주 3개 지역이 꼽힘.

- 2019년과 2020년의 여성 취업자 수는 2019년 11,903천명에서 2020년 11,633천명으로

2.3% 감소하여 남성의 2019년 15,606천명에서 2020년 15,456천명으로 1.0% 감소한 것보다 크게 감소함. 전국 여성 취업자 수 감소율보다 크게 감소한 곳은 울산, 부산·경기, 경북, 강원, 서울 순으로 6개 지역이고,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한 곳은 대전, 세종, 전북, 전남 4개 지역임.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북 8개이고, 남성과 여성 모두 전국 감소율보다 큰 지역은 서울, 부산, 강원 3개 지역임.

- 2019년과 2020년의 여성 실업자 수는 2019년 345천명에서 2020년 423천명으로 22.6% 증가하여 남성의 2019년 520천명에서 2020년 605천명으로 16.3% 증가한 것보다 크게 증가함. 전국 여성 실업자 수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한 곳은 경북, 충북, 광주, 제주, 서울, 대구, 경기, 울산 순으로 8개이고, 여성 실업자 수가 감소한 곳은 부산, 세종, 전북, 경남으로 4개 지역임. 남성보다 여성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 곳은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로 10개 지역이고, 남성과 여성 모두 전국 증가율보다 큰 지역은 대구, 광주, 충북, 제주 4개 지역임.

- 2019년과 2020년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수 비율 증감 변화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세 개 지표 모두 나빠진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 충남, 경북 5개 지역임. 전국 여성 증감률보다 더 나빠진 지역은 울산, 경기, 경북 3개 지역임. 남성 증감률과 전국 여성 증감률보다 나빠진 곳은 울산, 경기, 경북 3개 지역이 꼽힘.

〈연령별 고용률과 실업률〉

- 2019년과 2020년의 전국 성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남성 모두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5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고, 30대·40대·50대 여성이 남성보다 큰 감소율을 보임.

- 취업자 수는 여성·남성 모두 30대 이하 청년층에서 크게 감소함. 하지만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증감 현황이 다르게 나타남. 전국 여성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율보다 더 크게 감소한 곳은 부산, 인천, 울산, 강원, 경북 5개 지역을 꼽을 수 있음. 17개 지역 중 전국

여성 취업자 감소 현황과 같이 50대 이하 연령대 모두 감소한 지역은 부산, 울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6개 지역이 꼽힘.

- 2019년과 2020년의 전국 성별 실업자 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남성은 40대 이하 연령대에서 증가, 50대와 60대이상에서 감소함. 연령대별로 전국 여성 실업자 비율보다 더 크게 증가한 곳을 살펴보면, 10~20대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북, 제주 10개 지역이고, 30대의 경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6개 지역임. 40대는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8개 지역이고, 50대는 대구,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9개 지역, 60대이상은 서울,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10개 지역임. 17개 지역 중 전국 여성 증감률과 같이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자가 증가한 곳은 서울, 인천, 울산, 경기, 경북 5개 지역으로 꼽힘.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

- 2019년과 2020년의 전국 여성 종사자지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상용직 0.9% 증가, 임시·일용직과 비임금 노동자는 각각 5.9%, 4.5% 감소함. 남성은 상용직 0.5% 감소, 임시·일용직 4.1% 감소, 비임금 노동자 0.1% 감소함. 남성에 비해 임시·일용직과 비임금 노동에서 여성의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종사상 지위별로 전국 여성 증감률보다 더 크게 감소한 곳을 살펴보면, 상용직의 경우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과 같이 7개 지역에서 더 크게 감소함. 임시·일용직의 경우 서울,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제주 6개 지역, 비임금 노동의 경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로 9개 지역에서 전국 여성 감소율보다 더 크게 감소함. 17개 지역 중 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임금 모두 감소한 곳은 울산, 경기, 강원, 경북 4개 지역이 꼽힘.

- 2019년과 2020년의 전국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 1.5% 감소, 비정규직 1.8% 감소하고, 남성은 정규직 2.0% 감소, 비정규직 0.0%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직에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고용형태별로 전국 여성 감소율보다 더 크게 감소한 곳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10개 지역이고, 비정규직의 경우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제주 6개 지역임. 17개 지역 중 여성 정규직·비정규직이 모두 감소한 곳은 부산, 울산, 경기, 경북 4개 지역으로 꼽힘.

〈산업별, 직업별 노동자〉

- 019년과 2020년의 산업별 전국 여성노동자 수 감소율은 숙박및음식점업 > 도매및소매업/교육서비스업 > 정보통신업 > 제조업/금융및보험업 > 부동산업/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순으로 높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 운수및창고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순으로 여성노동자 수가 증가함. 코로나19 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산업에서 여성의 고용 감소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별로 산업별 여성노동자 증감 현황은 다르게 나타남. 지역별로 여성노동자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업종들이 다른 것은 지역의 산업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 2019년과 2020년의 직업별 전국 여성노동자 수는 판매종사자 > 전문가및관련종사자 > 서비스종사자 >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순으로 많이 감소했고, 단순노무종사자 > 사무종사자 > 관리자 순으로 여성노동자 수가 증가함. 산업과 마찬가지로 직업에서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판매직과 서비스직에서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지역이 다수 나타남.

- 지역별로 직업별 여성노동자 증감 현황은 다르게 나타남. 지역별로 여성노동자가 감소 또는 증가하는 직업들이 다른 것은 지역의 산업 특성과 함께 직업별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주당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준수〉

- 2019년과 2020년의 주당 노동시간별 전국 성별 노동자 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남성 모두 35시간미만과 35~40시간에서 증가했고 41~52시간, 53시간이상에서 감소했음. 이와 같은 특징은 남성의 경우 지역별로도 동일한 반면 여성의 경우 다르게 나타남. 여성은 부산, 울산, 강원, 경남 4개 지역에서 35시간미만은 증가한 반면 나머지 노동시간대에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과 2020년의 성별로 최저임금 미준수 비율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최저임금 미준수 감소율이 높음. 이것은 저임금 여성노동자가 남성보다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최저임금 미준수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하지만 지역별로 최저임금 준수율과 미준수 증감률은 다르게 나타남.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남, 제주 8개 지역은 여성노동자의 최저임금 준수율이 감소하고, 광주, 대전, 강원 3개 지역은 최저임금 미준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시사점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 여성노동자의 규모 변화는 전국 기준의 여성노동자 증감변화와 동일하지 않고 다른 변화들을 나타냄. 노동 지표별로 여성 노동 위기가 전국 기준 감소율보다 더 나쁘게 나타난 곳도 있고 여성노동자 수가 증가하는 곳도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별로 여성 노동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 노동 지표의 통계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여성 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통계 지표를 생산하여 지역의 여성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1. 분석 목적과 내용 구성¹⁾

○ 본 보고서는 민주노총이 지역의 여성노동자 고용 규모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작성함. 지역 범위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함. 지역의 여성노동자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는 우리나라에서 광역시도와 시군구별 노동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임.

○ 지역의 여성노동자 규모 변화는 노동위기가 발생한 코로나19 시기인 2019년과 2020년의 성별 임금노동자 증감 현황을 중심으로 전국 여성노동자 증감률과 비교하여 분석함. 분석 내용은 성별로 경제활동인구율·고용률·실업률 등의 노동지표, 연령별 고용률과 실업률,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별 현황, 산업·직업별 노동자 현황, 주당 노동시간, 최저임금 준수 현황 등을 분석함.

○ 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유의할 점은, 고용형태 분석에서 비정규직은 상용직 중에서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졌다고 응답한 기간제 노동자와 임시·일용직 중에서 어느 하나에 속하는 노동자의 합계 값으로, 원자료의 한계로 시간제, 파견·용역, 호출, 가내노동,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지 않음.

2. 분석 결과

1) 경제활동인구율, 고용률, 실업률

○ 2020년 기준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전국 여성 경제활동인구율은 52.9%로 12,056천 명이고, 전국 남성 경제활동인구율은 72.8%로 16,060천명임. <표 1>과 같이 2020년 전국 여성 경제활동인구율 52.9%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54.1%, 인천 54.7%, 광주 53.4%, 대전 54.3%, 강원 57.1%, 충북 56.4%, 충남 56.5%, 전북 54.5%, 전남 57.5%, 경북 53.5%, 제주 63.4%로 11개이고, 낮은 곳은 부산 49.4%, 대구 49.9%, 울산 46.0%, 세종 52.7%, 경기

1) 이 보고서는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과제 ‘지방정부 성평등 노동 정책 실태 연구(가칭)’의 일부임.

50.6%, 경남 52.6%로 6개임.

〈표 1〉 2020년 성별 경제활동인구 비율(단위: %)

	남자	여자
전체	72.8	52.9
서울	70.8	54.1
부산	67.4	49.4
대구	70.9	49.9
인천	73.7	54.7
광주	69.3	53.4
대전	72.2	54.3
울산	74.0	46.0
세종	75.9	52.7
경기	74.5	50.6
강원	71.3	57.1
충북	73.9	56.4
충남	76.1	56.5
전북	71.8	54.5
전남	74.0	57.5
경북	74.9	53.5
경남	74.2	52.6
제주	74.4	63.4

- 주 : 성별로 전체 비율보다 높은 지역을 다른 색으로 표시함.

○ 2019년과 2020년의 여성 경제활동인구 수는 2019년 12,248천명에서 2020년 12,056천명으로 1.6% 감소하여 남성의 2019년 16,125천명에서 2020년 16,060천명으로 0.4% 감소한 것보다 크게 감소함. [그림 1]과 같이 전국 여성 경제활동인구 수 감소율 -1.6%보다 크게 감소한 곳은 울산 -6.5%, 부산 -4.3%, 경기 -3.2%, 강원 -2.6%, 경북 -1.9%, 경남 -1.8% 순이고,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곳은 광주 1.2%, 대전 1.4%, 세종 4.1%, 충북 0.8%, 전북 4.1%, 전남 0.5%로 나타남. 남성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감소율이 큰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8개이고, 남성과 여성 모두 전국 성별 감소율보다 큰 지역은 부산, 강원, 제주 3개 지역이 꼽힘.

[그림 1] 2019-2020년 성별 경제활동인구 수 증감변화(단위: %)



○ 2020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을 계산한 전국 여성 고용률은 51.1%로 11,633천명에 해당하고, 남성의 고용률은 72.8%로 15,456천명임. <표 2>와 같이 2020년 전국 여성 고용률 51.1%보다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51.5%, 인천 52.4%, 광주 51.4%, 대전 52.9%, 세종 52.1%, 강원 55.2%, 충북 55.0%, 충남 54.9%, 전북 53.6%, 전남 56.7%, 경북 51.6%, 제주 62.3%로 12개이고, 낮은 지역은 부산 48.0%, 대구 48.0%, 울산 44.1%, 경기 48.7%, 경남 51.0%로 5개임.

<표 2> 2020년 성별 고용률 현황(단위: %)

	남자	여자
전체	70.0	51.1
서울	67.6	51.5
부산	64.8	48.0
대구	68.2	48.0
인천	70.3	52.4
광주	66.4	51.4
대전	70.3	52.9
울산	71.5	44.1
세종	74.5	52.1
경기	71.5	48.7
강원	69.8	55.2
충북	71.1	55.0
충남	74.2	54.9
전북	69.9	53.6
전남	73.1	56.7
경북	72.4	51.6
경남	70.6	51.0

제주	72.6	62.3
----	------	------

- 주 : 성별로 전체 비율보다 높은 지역을 다른 색으로 표시함.

○ 2019년과 2020년의 여성 취업자 수는 2019년 11,903천명에서 2020년 11,633천명으로 2.3% 감소하여 남성의 2019년 15,606천명에서 2020년 15,456천명으로 1.0% 감소한 것보다 크게 감소함. [그림 2]와 같이 전국 여성 취업자 수 감소율 -2.3%보다 크게 감소한 곳은 울산 -7.4%, 부산·경기 -4.2%, 경북 -3.4%, 강원 -3.2%, 서울 -2.6% 순으로 6개 지역이고,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한 곳은 대전 1.4%, 세종 5.2%, 전북 4.7%, 전남 0.5% 4개 지역임.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북 8개이고, 남성과 여성 모두 전국 감소율보다 큰 지역은 서울, 부산, 강원 3개 지역임.

[그림 2] 2019-2020년 성별 취업자 수 증감 변화(단위: %)



○ 2020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을 계산한 전국 여성 실업률은 3.5%로 423천명에 해당하며, 남성의 실업률은 3.8%로 605천명임. <표 3>과 같이 2020년 전국 여성 실업률 3.5%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4.7%, 대구 3.7%, 인천 4.1%, 광주 4.0%, 울산 4.6%, 경기 3.7%로 6개이고, 낮은 지역은 부산 2.9%, 대전 2.5%, 세종 1.3%, 강원 3.4%, 충북 2.5%, 충남 2.9%, 전북 1.6%, 전남 1.4%, 경남 2.9%, 제주 1.7%로 10개임. 경북은 3.5%로 전국 실업률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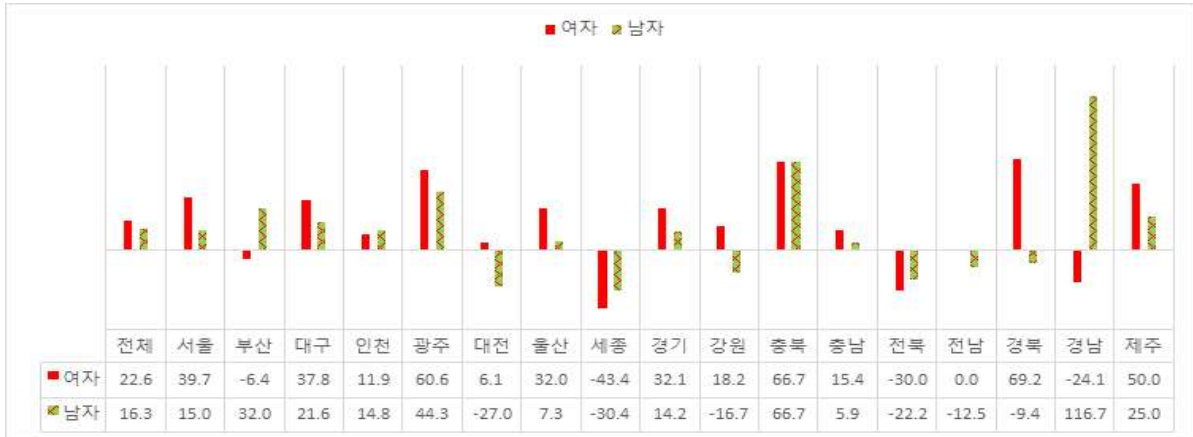
〈표 3〉 2020년 성별 실업률 현황(단위: %)

	남자	여자
전체	3.8	3.5
서울	4.4	4.7
부산	3.9	2.9
대구	4.1	3.7
인천	4.6	4.1
광주	4.2	4.0
대전	2.8	2.5
울산	3.3	4.6
세종	1.8	1.3
경기	4.0	3.7
강원	2.2	3.4
충북	3.8	2.5
충남	2.5	2.9
전북	2.6	1.6
전남	1.2	1.4
경북	3.3	3.5
경남	4.9	2.9
제주	2.4	1.7

- 주 : 성별로 전체 비율보다 높은 지역을 다른 색으로 표시함.

○ 2019년과 2020년의 여성 실업자 수는 2019년 345천명에서 2020년 423천명으로 22.6% 증가하여 남성의 2019년 520천명에서 2020년 605천명으로 16.3% 증가한 것보다 크게 증가함. [그림 3]과 같이 전국 여성 실업자 수 증가율 22.6%보다 크게 증가한 곳은 경북 69.2%, 충북 66.7%, 광주 60.6%, 제주 50.0%, 서울 39.7%, 대구 37.8%, 경기 32.1%, 울산 32.0% 순으로 8개이고, 여성 실업자 수가 감소한 곳은 부산 -6.4%, 세종 -43.4%, 전북 -30.0%, 경남 -24.1%로 4개 지역임. 남성보다 여성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 곳은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로 10개 지역이고, 남성과 여성 모두 전국 증가율보다 큰 지역은 대구, 광주, 충북, 제주 4개 지역임.

[그림 3] 2019-2020년 성별 실업자 수 증감변화(단위: %)



○ 2019년과 2020년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수 비율 증감 변화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세 개 지표 모두 나빠진 지역은 서울, 울산, 경기, 충남, 경북 5개 지역임. 부산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 2개 지표에서 감소함. 대구와 강원은 취업자와 실업자 2개 지표에서, 제주 는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2개 지표에서 남성보다 더 나빠졌음. 광주와 전남은 실업자 1개 지표에서, 경남은 경제활동인구 1개 지표에서 남성보다 더 감소함.

2019년과 2020년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수 비율 증감 변화에서 전국 여성 증감률보다 더 나빠진 지역은 울산, 경기, 경북 3개 지역임. 서울은 취업자, 실업자 2개 지표에서, 부산·강원은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2개 지표에서 전국 여성 비율보다 더 나빠졌고, 대구·광주·충북·제주는 실업자 1개 지표에서, 경남은 경제활동인구 1개 지표에서 전국 여성 비율보다 더 나빠졌음.

2019년과 2020년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수 증감 현황에서 남성 증감률과 전국 여성 증감률보다 나빠진 곳은 울산, 경기, 경북 3개 지역이 꼽힘.

<표 4> 2019-2020년 여성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수 증감 비교

남성 증감률보다 더 나빠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		√
전국 여성 증감률보다 더 나빠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		√					√		√	√					√	√	
5	√	√					√		√	√					√		
6	√		√		√		√		√		√				√		√

- 주 : 1(경제활동인구 수 감소), 2(취업자 수 감소), 3(실업자 수 증가),
4(경제활동인구 수 감소), 5(취업자 수 감소), 6(실업자 수 증가)

2) 연령별 고용률과 실업률

○ 2020년 기준 전국 여성 고용률을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10~20대 16.6%, 30대 17.7%, 40대 22.1%, 50대 23.2%, 60대이상 20.4%임. 연령별 전국 남성 고용률은 10~20대 11.8%, 30대 20.8%, 40대 24.2%, 50대 23.9%, 60대이상 19.4%임.

성별로 고용률이 높은 연령대를 보면 여성은 50대 > 40대 > 60대이상 > 30대 > 10~20대 순이고, 남성은 40대 > 50대 > 30대 > 60대이상 > 10~20대 순으로 나타나 고용률이 높은 중심축이 남성은 30~50대, 여성은 40~60대이상으로 나타남. 30대 여성(17.7%)의 경우 30대 남성(20.8%)의 고용률과 큰 차이를 보이며 낮게 나타남.

〈표 5〉와 같이 2020년 연령대별로 전국 여성 고용률보다 높은 지역은, 10~20대 여성의 경우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5개이고, 30대 여성은 서울, 인천, 세종, 경기 4개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30대 이하 여성 청년 고용률은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40대 여성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남, 제주 9개 지역이 전국 고용률보다 높고, 50대 여성은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9개 지역이 높음. 60대이상 여성은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개 지역이 높음.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 8개 지역은 여성 청년층보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여성 고용률이 높게 나타남.

〈표 5〉 2020년 여성, 남성 연령별 고용률(단위: %)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11.8	16.6	20.8	17.7	24.2	22.1	23.9	23.2	19.4	20.4
서울	12.4	22.4	23.7	20.7	24.0	20.8	22.8	20.5	17.1	15.5
부산	12.1	16.5	18.8	15.1	24.0	21.1	23.7	25.9	21.4	21.6
대구	11.2	16.8	18.9	14.7	24.7	22.8	26.2	26.3	18.9	19.5
인천	13.6	16.9	21.5	18.5	24.2	23.3	23.2	25.0	17.7	16.3
광주	11.6	19.0	20.6	16.4	26.6	25.3	25.4	22.3	15.7	17.0
대전	14.8	19.7	20.4	17.7	23.8	22.9	23.4	22.9	17.5	16.8
울산	10.5	14.4	22.2	17.3	25.6	24.0	27.3	26.0	14.2	18.3
세종	9.3	15.8	27.8	26.3	31.5	28.9	18.5	18.4	13.0	11.8
경기	12.1	17.1	22.4	20.0	25.6	23.5	23.7	23.3	16.1	16.0
강원	10.3	12.8	16.1	13.0	22.1	20.4	25.4	24.2	26.3	29.9
충북	12.7	14.5	19.2	16.6	22.2	21.0	24.2	24.4	21.8	23.4
충남	11.7	15.7	20.3	15.5	22.6	21.2	22.1	21.8	23.3	25.7
전북	9.2	11.6	17.1	14.4	21.8	20.8	24.4	22.6	27.4	30.4
전남	8.7	9.7	15.9	13.1	21.7	20.0	25.3	22.1	28.3	35.0
경북	11.2	11.2	16.5	13.2	21.1	20.5	24.6	23.5	26.6	31.5
경남	10.5	9.9	19.7	16.6	24.1	22.4	24.5	24.8	21.0	26.3
제주	10.3	13.0	20.1	15.3	25.0	23.7	24.5	22.6	20.1	25.4

- 주 : 성별로 전체 비율보다 높은 지역을 다른 색으로 표시함.

○ [그림 4]와 같이 2019년과 2020년의 전국 성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남성 모두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5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고, 30대·40대·50대 여성이 남성보다 큰 감소율을 보임.

취업자 수는 여성·남성 모두 30대 이하 청년층에서 크게 감소함. 하지만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증감 현황이 다르게 나타남. 청년층 고용률이 높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여성은 10~20대 1.0% 증가, 30대 7.7%로 감소한 반면 남성은 10~20대 10.3% 감소, 30대 남성 1.1%로 감소함. 인천의 경우 여성은 10~20대 14.3% 감소, 30대 9.4%로 감소, 남성은 10~20대 0.8% 감소, 30대 5.9%로 감소하여 여성 청년층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경기의 경우 여성은 10~20대 10.4% 감소, 30대 2.1%로 감소, 남성은 10~20대 7.8% 감소, 30대 1.7%로 감소하여 여성 취업자 수 감소율이 큼.

전국 여성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율보다 더 크게 감소한 곳은 부산, 인천, 울산, 강원, 경

2019-20년 지역 여성노동자 증감현황

북 5개 지역을 꼽을 수 있음.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20대 여성의 경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9개 지역, 30대의 경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강원, 경북 7개 지역, 40대의 경우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남 8개 지역, 50대의 경우 서울,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개 지역, 60대이상의 경우 서울, 세종 2개 지역만이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감소하고 있음.

17개 지역 중 전국 여성 취업자 감소 현황과 같이 50대 이하 연령대 모두 감소한 지역은 부산, 울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6개 지역이 꼽힘.

[그림 4] 2019-2020년 연령별 여성, 남성 취업자 수 증감변화(단위: %)



○ 2020년 기준 전국 여성 실업률을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10~20대 36.5%, 30대 20.9%, 40대 15.3%, 50대 16.9%, 60대이상 10.4%임. 연령별 전국 남성 실업률은 10~20대

30.9%, 30대 21.8%, 40대 17.4%, 50대 15.9%, 60대이상 14.0%임. 여성·남성 모두 30대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고, 20대 이하 여성 청년층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음.

〈표 6〉과 같이 2020년 연령대별로 전국 여성 실업률보다 높은 지역은, 10~20대 여성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전북, 제주 8개이고, 30대 여성은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6개로서, 30대 이하 청년층 여성 실업률은 서울과 대구 2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40대 여성은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10개이고, 50대 여성은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8개이며, 60대이상 여성은 서울, 부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6개 지역으로 나타나 4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 실업률은 강원, 충북 2개 지역에서 크게 나타남.

〈표 6〉 2020년 여성, 남성 실업률(단위: %)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30.9	36.5	21.8	20.9	17.4	15.3	15.9	16.9	14.0	10.4
서울	31.5	41.7	21.6	23.4	15.3	11.2	14.8	11.9	16.9	11.7
부산	30.9	47.1	24.5	16.8	14.3	9.0	13.4	15.2	16.9	11.8
대구	30.9	37.0	28.8	22.3	8.6	5.4	18.9	28.1	12.7	7.2
인천	24.8	31.5	30.6	25.6	23.1	21.6	9.0	13.0	12.5	8.4
광주	39.3	44.9	18.6	19.0	15.4	17.9	11.9	9.3	14.7	8.9
대전	30.5	22.4	27.8	29.7	17.2	18.3	22.3	27.8	2.4	1.8
울산	45.5	36.8	12.1	16.0	10.3	21.4	16.2	17.2	15.9	8.6
세종	17.7	18.5	33.4	29.0	17.8	13.5	22.2	28.8	8.8	10.3
경기	29.4	31.9	24.4	24.0	16.2	14.3	18.2	21.3	11.9	8.5
강원	45.3	35.2	7.8	7.2	14.5	16.0	14.5	21.4	17.9	20.1
충북	32.9	38.6	10.5	6.6	20.4	25.9	11.1	17.1	25.1	11.8
충남	28.0	27.6	8.7	16.8	23.1	20.1	26.0	28.0	14.2	7.5
전북	45.5	62.6	13.6	7.9	11.9	6.3	16.2	12.9	12.9	10.4
전남	32.3	25.5	17.9	13.7	6.9	19.9	18.2	12.2	24.6	28.6
경북	26.3	33.1	22.4	14.7	27.3	22.9	10.1	15.6	13.9	13.7
경남	28.6	28.3	16.8	20.4	26.7	28.6	17.1	12.7	10.8	10.0
제주	43.3	58.7	13.2	10.1	9.8	12.0	16.4	9.3	17.3	9.9

- 주 : 성별로 전체 비율보다 높은 지역을 다른 색으로 표시함.

○ [그림 5]와 같이 2019년과 2020년의 전국 성별 실업자 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남성은 40대 이하 연령대에서 증가, 50대와 60대이상에서 감소함. 공통적으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40대 이하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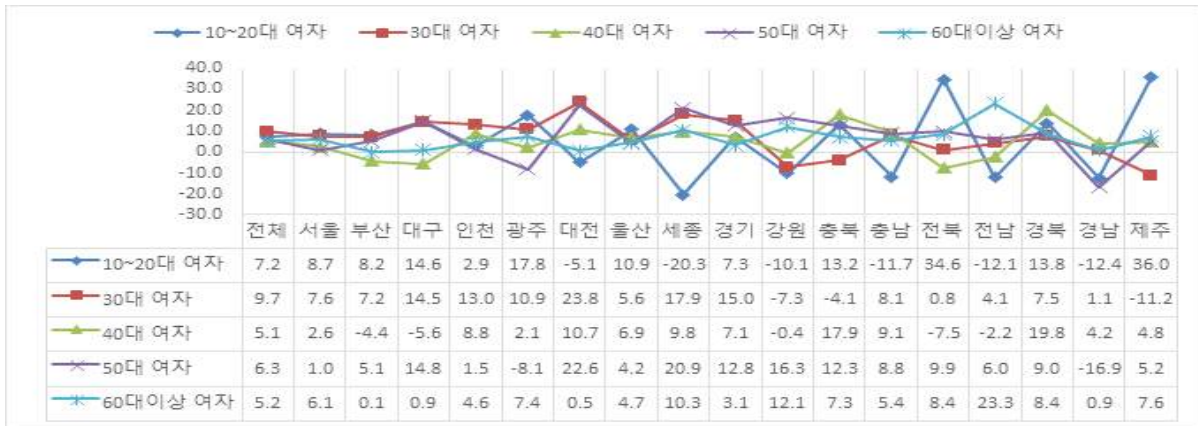
2019-20년 지역 여성노동자 증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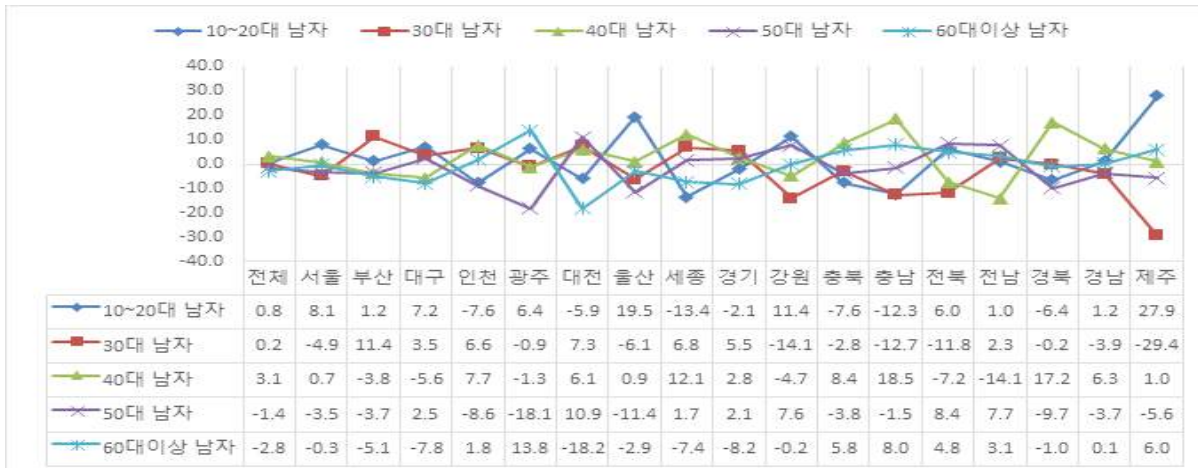
10~20대 실업자 수는 7.2% 증가, 30대 9.7% 증가, 40대 5.1% 증가했음. 남성의 경우 10~20대 실업자 수는 0.8% 증가, 30대 0.2% 증가, 40대 3.1% 증가해 남성보다 여성이 30대 이하 청년층과 40대에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연령대별로 전국 여성 실업자 수 증가율보다 더 크게 증가한 곳을 살펴보면, 10~20대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북, 제주 10개 지역이고, 30대의 경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6개 지역임. 40대는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8개 지역이고, 50대는 대구,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9개 지역, 60대이상은 서울,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10개 지역임.

17개 지역 중 전국 여성 증감률과 같이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자가 증가한 곳은 서울, 인천, 울산, 경기, 경북 5개 지역으로 꼽힘.

[그림 5] 2019-2020년 여성, 남성 실업자 수 증감변화(단위: %)





3)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

○ 2020년 기준 전국 여성 종사상 지위별 노동자 비율은 상용직 50.2%, 임시·일용직 28.1%, 비임금노동자 21.7%이고, 남성은 상용직 55.7%, 임시·일용직 17.6%, 비임금노동자 26.7%임. 임금노동자 중 성별로 종사상지위를 비교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상용직 비율이 낮고, 임시·일용직 비율이 훨씬 크게 차지함.

〈표 7〉과 같이 2020년 전국 여성 임금 노동자 비율보다 많은 지역은 상용직의 경우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6개이고, 임시·일용직의 경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9개 지역임. 부산·대구·울산·강원·전남 5개 지역은 여성 상용직 비율이 전국 비율보다 낮고 임시·일용직이 전국 비율보다 높은 지역에 해당함.

〈표 7〉 2020년 종사상지위별 성별 노동자 비율(단위: %)

	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임금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55.7	50.2	17.6	28.1	26.7	21.7
서울	60.2	57.2	19.2	28.1	20.7	14.8
부산	54.0	48.5	19.8	29.3	26.2	22.2
대구	53.4	50.1	17.7	28.4	28.8	21.6
인천	56.3	51.6	21.2	33.9	22.5	14.5
광주	55.5	50.6	17.7	28.2	26.8	21.2
대전	57.9	54.4	20.3	28.6	21.8	17.0
울산	66.1	50.0	16.8	31.0	17.2	19.1

2019-20년 지역 여성노동자 증감현황

세종	72.1	65.0	7.8	17.4	19.9	17.4
경기	59.5	54.5	18.0	28.2	22.5	17.2
강원	46.8	43.2	18.9	28.7	34.4	28.2
충북	54.4	47.4	14.9	26.2	30.7	26.3
충남	51.2	42.5	14.5	25.3	34.3	32.2
전북	44.4	42.1	16.5	24.9	39.1	32.9
전남	43.1	32.5	16.4	29.4	40.5	35.3
경북	47.4	39.7	13.9	25.0	38.7	35.3
경남	54.4	44.5	14.7	27.8	30.9	27.7
제주	44.2	40.6	17.0	25.3	38.6	34.2

- 주 : 성별로 전체 비율보다 높은 지역을 다른 색으로 표시함.

○ [그림 6]과 같이 2019년과 2020년의 전국 여성 종사자지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상용직 0.9% 증가, 임시·일용직과 비임금 노동자는 각각 5.9%, 4.5% 감소함. 남성은 상용직 0.5% 감소, 임시·일용직 4.1% 감소, 비임금 노동자 0.1% 감소함. 남성에 비해 임시·일용직과 비임금 노동에서 여성의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종사상 지위별로 전국 여성 증감율보다 더 크게 감소한 곳을 살펴보면, 상용직의 경우 부산 -8.8%, 울산 -2.6%, 경기 -0.5%, 강원 -1.0%, 충남 -2.9%, 전남 -0.6%, 경북 -2.0%과 같이 7개 지역에서 더 크게 감소함. 임시·일용직의 경우 서울 -13.9%, 광주 -7.0%, 울산 -9.4%, 세종 -13.5%, 경기 -7.1%, 제주 -17.4% 6개 지역, 비임금 노동자의 경우 대구 -9.9%, 인천 -5.9%, 대전 -12.3%, 울산 -15.2%, 경기 -10.3%, 강원 -7.2%, 충북 -5.8%, 경북 -4.8%, 경남 -5.4%로 9개 지역에서 전국 여성 감소율보다 더 크게 감소함.

17개 지역 중 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임금 모두 감소한 곳은 울산, 경기, 강원, 경북 4개 지역이 꼽힘.

[그림 6] 2019-2020년 종사상지위별 여성, 남성 노동자 수 증감 변화(단위: %)



○ 2020년 기준 고용형태별로 성별 노동자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은 정규직 54.4%, 비정규직 45.6%이고 남성은 정규직 67.5%, 비정규직 32.5%로 여성은 남성이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여성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에 해당함.

〈표 8〉과 같이 전국 여성 정규직 노동자 비율보다 정규직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대구,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제주 7개 지역이고, 비정규직의 경우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개 지역임.

〈표 8〉 2020년 정규직, 비정규직 성별 노동자 비율(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67.5	54.4	32.5	45.6
서울	65.5	56.7	34.5	43.3

2019-20년 지역 여성노동자 증감현황

부산	65.9	53.4	34.1	46.6
대구	69.8	57.2	30.2	42.8
인천	64.7	51.0	35.3	49.0
광주	68.3	53.2	31.7	46.8
대전	63.7	54.4	36.3	45.6
울산	73.4	52.5	26.6	47.5
세종	82.9	69.0	17.1	31.0
경기	66.8	54.7	33.2	45.3
강원	63.6	50.8	36.7	49.2
충북	72.0	55.8	27.7	44.5
충남	71.1	54.2	28.9	45.8
전북	66.0	54.9	34.0	45.1
전남	68.4	46.1	31.9	53.9
경북	71.2	53.9	28.8	46.1
경남	72.2	53.8	27.8	46.2
제주	64.0	51.3	35.2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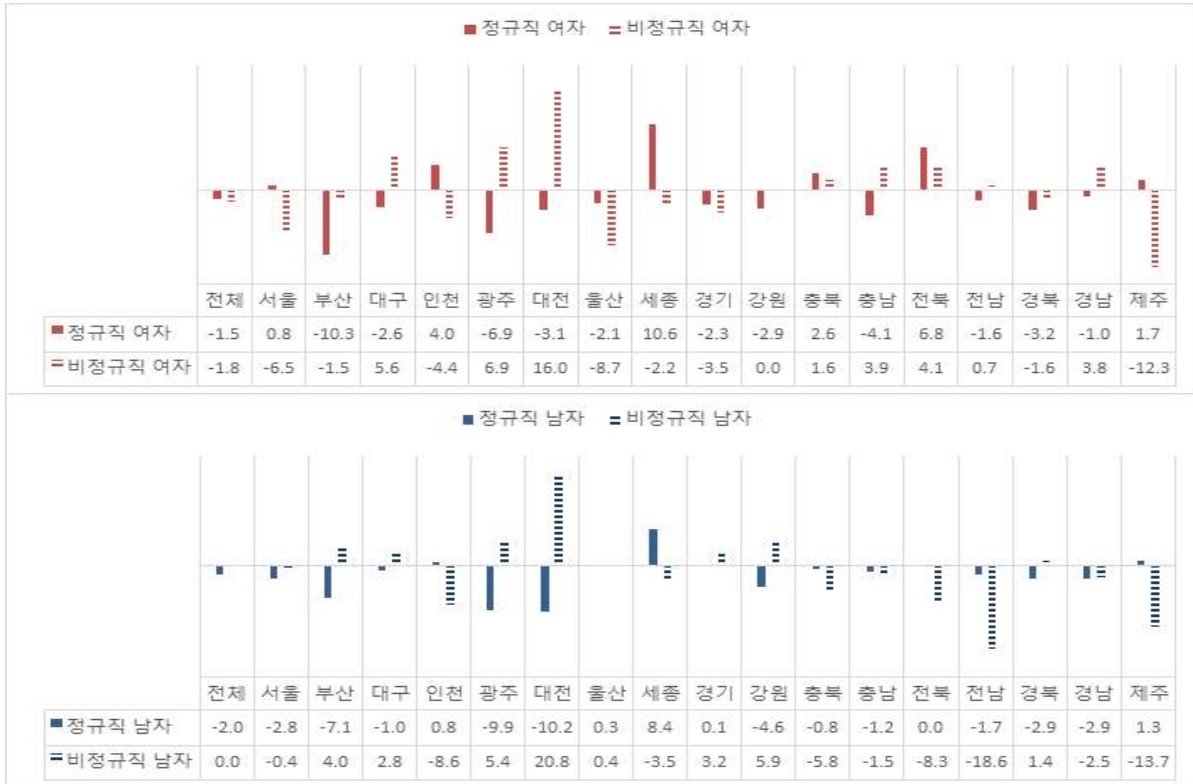
- 주 : 성별로 전체 비율보다 높은 지역을 다른 색으로 표시함.

○ [그림 7]과 같이 2019년과 2020년의 전국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 1.5% 감소, 비정규직 1.8% 감소하고, 남성은 정규직 2.0% 감소, 비정규직 0.0%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직에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고용형태별로 전국 여성 감소율보다 더 크게 감소한 곳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10개 지역이고, 비정규직의 경우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제주 6개 지역임.

17개 지역 중 여성 정규직·비정규직이 모두 감소한 곳은 부산, 울산, 경기, 경북 4개 지역으로 꼽힘.

[그림 7] 2019-2020년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노동자 수 증감 변화(단위: %)



4) 산업별 노동자

○ 2020년 기준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6.9%) > 도매및소매업(13.6%) > 숙박및음식점업(11.1%) > 제조업(10.5%) > 교육서비스업(10.2%) > 농업·임업및어업(5.5%)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5.1%)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업(4.8%)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3.6%) > 금융및보험업(3.5%) >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2.0%) > 정보통신업(1.8%) > 건설업/부동산업/운수및창고업(1.7%) >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0.2%)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0.1%) 순임. 남성의 경우 제조업(20.1%) > 건설업/도매및소매업(12.1%) > 운수및창고업(8.2%)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5.2%) > 숙박및음식점업(5.1%) 순으로 나타나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서비스업이 다수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음.

2020년 기준 지역별로 여성노동자의 산업별 분포는 농업·임업및어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

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농업·임업및어업의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로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등 1·2차 산업의 여성노동자 비율이 전국 여성 비율 보다 높은 편이고, 농업·임업및어업의 여성노동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전국 여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업은 농업·임업및어업과 큰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남.

<표 9> 2020년 산업별 여성노동자 비율(단위: %)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냉난방·공기조절공급업	수하수·폐기물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부동산업	전문·과학·서비스업	사업·설치·서비스업	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업	예술·스포츠·서비스업	협회·개서비스업
전체	5.5	0.0	10.5	0.1	0.2	1.7	13.6	1.7	11.1	1.8	3.5	1.7	3.6	5.1	4.8	10.2	16.9	2.0	5.1
서울	0.1	0.0	6.9	0.1	0.2	1.4	15.1	1.7	10.1	4.0	4.7	2.1	7.3	6.3	4.2	11.2	14.8	2.5	5.8
부산	0.3	0.0	9.6	0.1	0.3	1.8	18.0	2.2	13.1	0.9	3.7	1.6	2.4	5.4	3.5	8.9	18.9	1.8	5.9
대구	2.0	0.0	11.4	0.2	0.2	1.9	14.3	0.9	11.3	1.0	3.6	1.5	3.0	5.1	4.4	11.0	19.5	1.5	6.3
인천	0.8	0.1	15.2	0.1	0.3	1.6	14.1	3.1	10.6	1.8	4.5	1.7	2.8	7.3	3.8	8.5	16.9	1.3	4.2
광주	2.2	0.0	9.7	0.2	0.3	2.2	12.6	0.6	12.0	1.2	3.7	1.8	2.5	3.6	4.6	12.1	22.1	2.5	5.5
대전	0.8	0.0	8.4	0.1	0.4	1.9	12.9	1.7	11.7	1.4	2.8	1.9	4.4	6.3	6.9	10.9	18.6	2.1	5.9
울산	1.2	0.0	8.8	0.0	0.1	2.0	13.3	1.6	13.9	0.4	4.0	2.2	1.7	4.7	6.2	12.3	19.3	2.0	5.9
세종	4.3	0.0	7.3	0.0	0.0	1.5	6.2	0.7	9.5	1.2	3.2	2.2	5.9	2.8	15.2	16.8	15.3	2.3	5.1
경기	1.4	0.0	13.8	0.1	0.2	1.9	15.0	2.2	10.5	2.3	3.4	2.0	4.1	6.1	4.0	10.4	14.9	2.3	4.4
강원	8.7	0.3	4.7	0.2	0.4	1.9	11.2	1.1	15.5	0.8	2.7	0.8	1.6	3.3	7.2	9.8	21.7	2.0	5.8
충북	10.7	0.0	16.8	0.0	0.2	1.1	9.6	1.0	10.1	0.6	2.7	1.3	1.7	4.1	4.8	9.7	17.6	2.1	5.3
충남	16.1	0.0	12.8	0.2	0.2	2.0	10.0	1.8	11.0	0.7	1.9	1.1	1.6	3.9	4.1	10.0	15.5	1.7	5.1
전북	18.7	0.0	7.6	0.1	0.3	2.0	10.1	0.6	9.3	0.4	3.2	1.1	1.4	2.2	5.5	10.3	20.7	1.4	4.8
전남	21.8	0.0	5.1	0.2	0.2	1.6	11.5	1.1	11.8	0.3	2.6	0.9	1.4	1.9	9.6	7.3	17.0	1.6	3.9
경북	19.9	0.0	12.2	0.1	0.3	1.5	9.5	0.9	9.1	0.4	2.8	1.0	1.1	3.2	5.4	8.3	18.3	1.4	4.3
경남	11.3	0.0	11.0	0.0	0.3	1.5	12.0	1.2	12.8	0.5	3.0	1.5	1.6	3.3	4.9	9.2	18.0	1.6	5.4
제주	17.5	0.0	2.7	0.1	0.2	2.5	12.0	1.2	16.7	0.5	2.6	0.9	1.6	2.4	5.9	10.5	15.5	2.7	4.2

- 주 : 산업별로 전체 비율보다 높은 지역을 다른 색으로 표시함.

<표 10> 2020년 산업별 남성노동자 비율(단위: %)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냉난방·공기조절공급업	수하수·폐기물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부동산업	전문·과학·서비스업	사업·설치·서비스업	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업	예술·스포츠·서비스업	협회·개서비스업
전체	6.1	0.1	20.1	0.4	0.8	12.1	12.1	8.2	5.1	4.0	2.4	2.0	4.9	5.2	4.3	3.8	2.9	1.7	3.8
서울	0.3	0.0	10.3	0.3	0.5	10.5	15.8	7.7	6.0	9.3	4.1	3.0	9.3	5.8	3.4	4.8	2.9	1.9	4.1
부산	0.6	0.0	19.6	0.4	1.0	13.9	15.5	11.3	5.9	1.4	2.3	2.2	2.7	5.8	4.2	3.8	4.0	1.5	3.9
대구	2.5	0.0	24.8	0.3	1.1	13.0	13.1	8.5	4.9	1.9	2.1	2.0	3.0	4.1	3.8	4.7	4.1	1.1	4.8
인천	1.3	0.0	25.0	0.3	0.8	12.0	12.2	11.8	4.7	3.5	2.2	2.3	3.5	6.5	2.6	2.7	3.3	1.6	3.6
광주	2.2	0.0	17.7	0.7	0.5	15.3	13.2	8.0	5.5	1.8	2.8	2.3	3.7	4.0	6.3	4.8	4.5	2.0	4.8

대전	1.2	0.1	16.3	0.3	1.0	14.2	11.5	9.0	5.0	3.8	1.7	2.6	7.9	4.8	6.3	4.2	3.5	1.6	5.1
울산	1.4	0.0	40.0	0.6	0.6	10.7	7.4	9.5	3.6	1.3	1.5	1.8	3.3	4.7	3.4	3.5	1.8	1.3	3.6
세종	5.4	0.0	16.6	0.9	1.3	8.7	7.4	5.7	3.5	3.7	2.2	1.8	6.7	3.4	18.9	6.4	2.1	1.4	3.9
경기	2.0	0.0	22.3	0.3	0.9	13.3	13.1	7.9	4.7	5.1	2.0	2.0	6.1	6.0	3.4	3.4	2.1	1.9	3.5
강원	12.6	1.1	7.9	0.7	1.2	14.8	10.3	6.7	8.1	2.0	2.1	1.5	1.9	4.6	8.5	3.9	5.0	2.7	4.2
충북	11.2	0.1	28.5	0.2	1.0	9.5	8.3	8.3	4.3	1.4	1.2	1.5	2.1	5.5	4.4	3.4	3.0	1.8	4.1
충남	15.3	0.0	25.9	0.5	0.9	9.7	8.3	6.6	4.5	1.1	1.4	1.6	2.5	6.2	3.9	4.2	2.0	1.5	3.8
전북	20.3	0.2	15.6	0.4	0.8	12.9	8.5	7.5	4.3	1.7	2.1	1.8	2.5	2.6	5.5	4.3	3.8	1.1	4.0
전남	23.1	0.1	14.8	0.8	1.2	13.4	9.0	7.2	4.1	1.1	1.7	1.1	1.6	3.6	7.2	2.7	2.8	1.0	3.5
경북	20.5	0.1	25.1	0.7	0.9	10.4	7.6	6.6	3.6	1.1	2.0	1.1	2.0	3.8	4.3	3.5	2.3	1.2	3.1
경남	11.2	0.0	29.0	0.4	0.9	10.0	9.0	8.7	5.1	1.1	2.0	1.1	2.3	4.3	4.8	3.1	2.7	1.2	3.3
제주	22.3	0.0	4.4	0.7	0.5	15.1	9.8	8.3	9.1	0.7	2.5	1.5	2.2	3.2	7.6	4.1	2.7	2.2	3.0

- 주 : 산업별로 전체 비율보다 높은 지역을 다른 색으로 표시함.

○ 2019년과 2020년의 산업별 전국 여성노동자 감소율은 숙박및음식점업(-0.9%) > 도매 및소매업/교육서비스업(-0.4%) > 정보통신업(-0.3%) > 제조업/금융및보험업(-0.2%) > 부동산업/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0.1%) 순으로 높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2%)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0.9%) > 운수및창고업(0.2%)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0.1%) 순으로 많이 증가함. 남성은 도매및소매업/숙박및음식점업(-0.5%) > 부동산업(-0.3%) > 제조업(-0.2%) > 교육서비스업/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수리 및기타개인서비스업(-0.1%) 순으로 많이 감소했고, 농업·임업및어업(0.4%) > 건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0.3%)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0.2%)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운수및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및보험업(0.1%) 순으로 많이 증가함.

코로나19 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산업에서 여성의 고용 감소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음.

지역별로 산업별 여성노동자 증감 현황은 다르게 나타남. 전국 산업별로 여성 증감률보다 더 나빠진 업종은 제조업 10개 지역, 농업·임업및어업이 9개 지역, 숙박및음식점업/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8개 지역, 건설업/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7개 지역, 정보통신업/부동산업/교육서비스업 6개 지역, 금융및보험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5개 지역, 광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개 지역, 운수 및창고업 3개 지역,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2개 지역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여성노동자가 감소한 업종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충북/제주가 11개 업종으로 제일 많고, 세종/경북/경남이 10개 업종, 대전 9개 업종, 서울/부산/인천/울산 8개 업종, 광주/경기/강원/전북/전남 7개 업종, 대구/충남 6개 업종임.

지역별로 여성노동자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업종들이 다른 것은 지역의 산업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세종의 경우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이 2.3%로 전국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종으로 꼽히는 숙박및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각각 0.3%, 0.5% 증가함. 2020년 세종시의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여성노동자 비율이 15.2%인 것과 2019년과 2020년 1년 간 제일 높은 증가율을 가지는 것을 통해 이 업종이 특화되어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1> 2019-2020년 산업별 여성노동자 비율 증감변화(단위: %)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충기 등	수도·하수·폐기물 등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서비스업	사업·시설·서비스업	공행정 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서비스업	협회·개서비스업
전체	0.0	0.0	-0.2	0.0	0.0	0.0	-0.4	0.2	-0.9	-0.3	-0.2	-0.1	0.1	0.3	0.9	-0.4	1.2	-0.1	0.0
서울	0.0	0.0	-0.2	0.0	0.1	-0.2	-0.3	0.1	-0.8	-0.6	-0.3	-0.5	0.5	0.6	0.8	-0.6	0.4	0.2	0.6
부산	0.0	0.0	-0.9	0.0	0.0	-0.3	1.5	0.2	-0.2	-0.1	0.2	-0.4	0.2	0.2	0.9	-1.4	0.4	-0.2	-0.3
대구	-1.0	0.0	-1.6	0.1	0.0	0.0	0.1	0.1	-0.3	0.0	0.1	-0.2	0.5	1.2	0.9	-1.8	1.2	-0.1	0.7
인천	0.0	0.1	1.7	0.1	0.2	-0.2	-2.1	0.4	-0.8	-0.6	-0.5	0.1	-0.5	0.7	1.4	0.3	0.9	-0.9	-0.7
광주	-0.6	-0.1	0.6	0.1	0.1	0.3	0.1	-0.1	0.5	0.1	0.0	-0.2	0.1	0.2	0.2	-0.4	-0.6	0.2	-0.3
대전	-0.2	0.0	-0.5	-0.1	0.1	0.1	-0.4	0.6	-1.9	-0.4	0.0	-0.1	0.5	-0.2	1.5	-1.5	2.0	0.4	0.0
울산	-0.2	0.0	-1.9	-0.2	0.1	0.1	0.7	0.8	-2.7	-0.2	0.3	0.5	-0.4	0.1	0.9	0.6	3.0	-0.3	-1.0
세종	-0.4	0.0	-0.4	-0.1	0.0	-0.3	-1.0	0.1	0.3	-0.5	0.1	-0.1	-0.1	-1.0	2.3	0.0	-0.1	0.5	1.3
경기	-0.3	0.0	0.3	0.0	0.0	0.1	0.0	0.4	-1.0	-0.2	-0.5	-0.2	0.0	0.2	1.2	-0.8	1.0	0.0	-0.3
강원	-2.5	-0.2	-1.1	0.1	0.0	0.6	0.4	0.3	0.1	-0.2	0.2	-0.1	-0.1	0.1	0.5	0.3	1.9	-0.3	0.1
충북	-0.9	-0.1	2.1	-0.1	-0.1	-0.1	0.6	0.0	-1.8	0.0	0.3	-0.3	-0.2	-0.3	0.9	0.0	-0.1	0.1	-0.1
충남	0.1	0.0	-1.1	0.0	0.0	0.5	-0.7	0.2	-0.5	-0.3	-0.5	0.1	0.2	0.2	0.5	1.2	0.6	-0.2	0.0
전북	-0.8	0.0	-0.3	0.1	0.0	0.1	-0.7	0.1	-1.1	-0.4	0.0	0.0	-0.3	0.1	-0.1	0.1	3.2	0.0	0.2
전남	2.0	0.0	0.6	0.1	0.0	-0.2	-0.1	0.0	-1.2	0.0	0.2	0.0	0.1	0.0	0.6	-0.8	-0.4	-0.1	-0.8
경북	1.4	-0.1	-0.8	-0.1	0.0	0.0	-3.5	-0.2	-3.0	-0.2	-0.1	0.2	-0.1	0.6	1.5	0.7	3.0	-0.1	0.7
경남	0.4	0.0	-0.9	-0.1	-0.1	0.3	-0.8	0.1	-1.3	0.0	0.4	0.1	0.1	-0.1	-0.1	-0.4	2.5	-0.3	-0.1
제주	0.5	0.0	0.2	-0.1	-0.1	-0.2	-1.3	-0.1	0.8	-1.2	-0.8	-0.1	0.2	-1.9	0.4	1.9	3.2	-0.6	-0.8

- 주 : 산업별로 전체 비율보다 높은 지역을 다른 색으로 표시함.

〈표 12〉 2019-2020년 산업별 남성노동자 비율 증감변화(단위: %)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등	수도·하수·폐기물 등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등서비스업	사업·시설·서비스업	공행정 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서비스업	협회·개인서비스업
전체	0.4	0.0	-0.2	0.0	0.1	0.3	-0.5	0.1	-0.5	0.1	0.1	-0.3	0.0	0.3	0.3	-0.1	0.2	-0.1	-0.1
서울	0.0	0.0	0.3	0.0	0.1	-0.9	-0.7	0.8	-0.2	1.0	0.1	-0.4	-0.2	0.3	0.1	-0.1	0.0	-0.2	0.1
부산	-0.1	0.0	-0.5	0.0	0.1	-0.4	2.1	-1.5	-0.5	-0.2	0.5	-0.3	-0.1	0.5	0.9	0.0	0.4	-0.6	-0.1
대구	-0.5	-0.1	-1.8	0.0	0.5	0.0	0.4	1.0	-0.8	0.0	0.2	0.1	0.1	0.3	0.5	-0.3	0.3	-0.2	0.3
인천	-0.2	0.0	-0.4	0.1	0.0	0.8	-2.1	1.2	-0.3	0.2	0.1	0.0	0.2	0.2	0.2	-0.2	0.3	0.1	-0.4
광주	-0.1	0.0	-0.6	0.4	0.0	-0.1	0.5	0.4	0.3	0.0	0.1	-0.3	-0.6	0.6	0.9	-0.1	-1.1	0.2	-0.4
대전	-0.2	0.0	-1.2	0.0	0.0	2.5	-1.6	1.2	-1.3	0.2	-0.6	-0.3	1.0	0.0	0.5	-0.8	0.6	0.0	0.2
울산	0.0	0.0	-2.3	-0.2	0.1	1.5	0.0	1.4	-1.3	-0.2	-0.2	0.1	0.2	-0.1	0.1	0.5	0.3	0.3	-0.2
세종	0.5	-0.1	-0.4	0.4	0.0	0.7	0.4	-0.9	-1.0	-0.7	0.1	-1.1	-0.9	-0.2	1.5	0.7	-0.1	0.0	1.0
경기	-0.3	0.0	0.9	0.0	0.1	1.2	-0.8	-0.3	-0.6	-0.3	0.0	-0.4	-0.1	0.8	0.4	-0.3	0.1	-0.2	-0.1
강원	-2.9	0.1	-0.1	0.0	0.3	2.2	0.1	0.3	-0.4	0.3	0.3	-0.3	-0.1	0.4	-0.3	-0.4	0.3	0.3	-0.1
충북	0.1	0.0	2.6	0.1	-0.1	-0.7	-0.2	0.6	-0.1	0.1	0.0	-0.4	-0.7	-0.9	-0.9	0.4	0.2	-0.3	0.2
충남	1.9	0.0	-1.9	-0.1	0.0	-0.5	-0.1	-0.9	-0.3	-0.2	-0.3	0.1	0.4	0.0	0.8	0.7	0.1	0.2	0.2
전북	1.2	0.0	-0.1	0.0	0.0	-0.8	-0.5	0.2	-0.4	0.1	0.4	-0.1	0.6	-0.1	0.0	-0.4	0.9	-0.6	-0.4
전남	4.2	0.1	0.6	0.0	0.1	-1.4	-0.1	0.0	-0.8	0.1	0.1	-0.2	0.0	-0.3	-0.2	-0.7	-0.9	-0.1	-0.3
경북	2.7	-0.1	-2.4	0.2	0.2	0.8	-2.1	-0.3	-1.0	-0.1	0.3	0.0	0.5	0.3	0.0	0.6	0.3	0.1	-0.2
경남	0.6	-0.2	-1.5	-0.1	0.1	1.4	-0.6	0.5	-0.4	0.1	0.2	-0.5	0.1	0.4	0.1	-0.1	0.3	-0.1	0.1
제주	4.0	-0.1	0.7	0.2	-0.1	0.3	-0.5	-0.6	-0.5	-0.8	-0.5	-0.3	-0.2	-0.9	0.0	0.7	-0.2	-0.2	-1.2

- 주 : 산업별로 전체 비율보다 높은 지역을 다른 색으로 표시함.

5) 직업별 노동자

○ 2020년 기준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은 직업은 전문가및관련종사자(22.4%) > 사무종사자(20.5%) > 서비스종사자(17.3%) > 단순노무종사자(16.9%) > 판매종사자(12.2%) > 농림·어업숙련종사자(5.0%) >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2.9%) >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2.4%) > 관리자(0.6%) 순으로 많음. 남성은 전문가및관련종사자(18.3%) >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16.7%) > 사무종사자(14.8%) >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13.7%) > 단순노무종사자(12.9%) > 판매종사자(9.1%) > 서비스종사자(6.4%) > 농림·어업및숙련종사자(5.9%) > 관리자(2.2%) 순으로 많음. 성별로 직업 분포 차이는 여성의 서비스직 비율이 높고, 관리직의 여성 비율이 낮은 점을 꼽을 수 있음.

2020년 기준 지역별로 여성노동자의 직업별 분포에서 농업·임업및어업 비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 주로 전문가및관련종사자와 사무종사자 비율이 전국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는 농업·임업및어업과 큰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은 직업으로 나타남.

<표 13> 2020년 직업별 여성, 남성 노동자 비율(단위: %)

	여성									남성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전체	0.6	22.4	20.5	17.3	12.2	5.0	2.4	2.9	16.9	2.2	18.3	14.8	6.4	9.1	5.9	13.7	16.7	12.9
서울	0.6	28.4	26.2	15.0	12.3	0.1	3.0	0.5	14.0	2.7	28.2	18.8	6.7	11.2	0.3	12.1	8.7	11.2
부산	0.7	19.2	21.3	19.6	15.5	0.3	3.4	2.3	17.6	2.7	13.3	16.3	7.5	11.8	0.5	16.6	17.3	14.0
대구	0.8	23.6	18.4	19.7	13.1	1.9	2.9	4.9	14.7	2.4	16.4	13.7	6.4	10.8	2.7	14.5	20.6	12.5
인천	0.3	19.4	23.2	17.4	14.0	0.7	2.4	5.1	17.5	1.4	15.5	13.9	6.3	9.7	1.1	15.7	22.7	13.6
광주	0.7	26.3	18.5	18.5	12.2	1.7	2.7	4.1	15.1	1.6	16.7	17.1	7.2	8.5	2.3	16.5	17.2	12.9
대전	0.9	23.3	21.3	18.6	12.2	0.8	2.6	2.3	17.9	2.2	21.6	12.7	6.2	8.8	1.5	15.5	15.7	15.8
울산	0.5	22.4	17.8	20.4	13.9	1.2	2.3	3.5	18.1	1.5	13.7	13.9	5.3	5.7	1.5	19.4	27.6	11.4
세종	0.5	30.4	29.7	17.2	6.8	4.4	1.3	1.9	7.9	2.4	26.6	23.7	7.3	5.8	5.9	9.7	12.7	6.0
경기	0.4	24.2	22.7	15.4	12.2	1.4	2.1	3.0	18.6	2.0	22.4	15.2	5.8	9.7	2.1	13.8	15.2	13.7
강원	0.9	16.8	16.8	22.2	11.1	7.7	2.0	1.1	21.2	3.0	10.4	12.4	10.0	7.3	12.2	13.7	15.1	15.9
충북	0.4	17.6	15.3	20.8	10.1	9.9	1.6	5.9	18.4	1.7	11.8	13.8	6.7	7.6	11.1	10.7	23.7	12.8
충남	0.3	18.7	15.0	17.8	11.0	14.2	1.8	4.4	16.7	2.0	12.4	12.4	6.4	7.0	14.3	11.1	21.2	13.3
전북	1.0	19.2	15.1	15.9	10.5	17.5	2.4	2.2	16.2	2.6	11.4	10.6	5.9	6.8	19.6	11.4	18.8	12.9
전남	0.3	13.6	14.8	19.5	11.3	21.0	2.0	1.2	16.3	1.6	8.5	12.1	5.8	6.3	22.7	14.2	17.0	11.7
경북	0.7	17.3	14.4	15.6	10.0	18.8	1.7	5.1	16.4	3.1	9.9	10.3	5.0	6.1	20.1	12.6	21.6	11.4
경남	0.6	18.2	13.8	20.4	11.6	9.7	1.7	4.6	19.4	1.5	11.7	12.5	6.5	7.1	10.3	14.4	22.5	13.4
제주	0.7	18.3	15.4	21.1	11.7	13.1	1.7	0.3	17.6	1.8	11.4	12.2	12.4	5.4	21.4	10.6	11.7	13.2

- 주 : 직업별로 전체 비율보다 높은 지역을 다른 색으로 표시함.

○ 2019년과 2020년의 직업별 전국 여성노동자는 판매종사자(-0.6%) > 전문가및관련종사자(-0.5%) > 서비스종사자(-0.3%) >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0.1%) 순으로 많이 감소했고, 단순노무종사자(1.4%) > 사무종사자(0.4%) > 관리자(0.1%) 순으로 증가했음. 남성은 사무종사자/판매종사자(-0.5%) > 서비스종사자/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0.3%) > 전문가및관련종사자(-0.1%) 순으로 많이 감소했고, 단순노무종사자(1.2%) >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0.3%) > 농림·어업숙련종사자(0.2%) 순으로 증가했음.

산업과 마찬가지로 직업에서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판매직과 서비스직에서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지역

이 다수 나타남.

지역별로 직업별 여성노동자 수 증감 현황은 다르게 나타남. 전국 직업별로 여성 증감률 보다 더 나빠진 업종은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2개 지역,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0개 지역, 전문가및관련종사자/서비스종사자 9개 지역, 판매종사자 8개 지역, 관리자/사무종사자 4개 지역, 단순노무종사자 3개 지역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여성노동자 수가 감소하는 직업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세종/경기/경남/제주가 6개 직업으로 제일 많고, 인천/광주/대전/울산이 5개 직업, 서울/대구/강원/전북/경북이 4개 직업, 부산/충북/충남/전남 3개 직업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여성노동자가 감소 또는 증가하는 직업들이 다른 것은 지역의 산업 특성과 함께 직업별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표 14〉 2019-2020년 직업별 여성노동자 비율 증감변화(단위: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전체	0.1	-0.5	0.4	-0.3	-0.6	0.0	-0.1	-0.1	1.4
서울	0.2	-0.9	0.8	0.8	-0.7	0.0	-0.6	-0.2	0.5
부산	0.2	-1.9	0.6	-1.0	1.0	0.1	1.1	-0.7	0.5
대구	0.0	-2.5	0.3	0.5	1.2	-0.8	-0.3	-0.4	2.0
인천	0.1	-1.0	-0.1	-1.6	-1.4	-0.1	0.4	0.8	2.9
광주	-0.7	0.2	1.5	-0.8	0.1	-0.7	-0.4	-0.4	0.9
대전	0.2	-1.7	2.3	-0.6	-1.9	-0.2	0.4	-0.2	1.7
울산	0.4	1.6	-0.9	-3.5	0.5	-0.3	-0.5	-0.1	2.9
세종	-0.1	-3.6	6.7	1.6	-0.7	-0.2	0.0	-0.8	-2.8
경기	-0.1	-0.6	0.2	-0.8	-0.9	-0.4	0.1	-0.2	2.6
강원	0.3	0.2	2.3	-0.1	0.5	-2.2	0.0	-0.1	-1.1
충북	0.0	-2.2	0.2	0.2	0.8	-0.9	-0.3	0.1	1.9
충남	0.0	1.2	0.3	-1.0	-1.0	0.5	0.0	-0.7	0.7
전북	0.1	1.1	0.2	-0.5	-0.2	-0.9	-0.6	-0.5	1.4
전남	0.0	-2.6	1.0	-1.9	0.0	2.6	-0.2	0.1	1.0
경북	0.2	2.2	0.2	-0.1	-3.4	1.6	-0.8	-0.4	0.6
경남	-0.2	-0.2	-0.7	0.5	-0.7	0.0	-0.4	-0.4	2.1
제주	0.5	4.0	-1.3	-0.3	-2.7	1.5	-0.2	-0.2	-1.5

- 주 : 직업별로 전체 비율보다 낮은 지역을 다른 색으로 표시함.

〈표 15〉 2019-2020년 직업별 남성노동자 비율 증감변화(단위: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동 종사자
전체	0.0	-0.1	-0.5	-0.3	-0.5	0.2	0.3	-0.3	1.2
서울	0.2	-0.2	-1.0	0.1	-0.2	-0.1	-0.3	0.3	1.1
부산	0.0	-1.1	0.9	-0.3	1.1	0.0	2.1	-3.6	1.0
대구	-0.5	-2.0	-0.3	-0.6	0.7	-0.4	-0.7	0.4	3.5
인천	0.2	-0.3	-1.7	-0.6	-2.1	-0.3	1.5	1.9	1.4
광주	-0.3	-1.2	0.6	-0.1	-0.8	-0.3	1.5	-0.7	1.2
대전	0.4	0.8	-1.5	-1.4	-0.8	-0.1	0.6	-1.1	3.0
울산	0.2	2.6	-2.1	0.3	-0.5	-0.3	-1.2	0.2	0.8
세종	1.1	-1.7	-0.4	0.2	-0.2	0.6	2.9	-1.5	-0.8
경기	-0.1	0.1	-0.6	-0.3	-0.8	-0.6	0.8	-0.8	2.3
강원	0.5	0.2	1.8	-0.2	-0.3	-2.3	1.5	1.0	-2.3
충북	0.6	0.0	-0.8	-0.5	0.9	-0.1	-0.6	0.9	-0.5
충남	0.3	-0.1	-0.3	-0.2	-0.7	1.9	-0.8	-0.8	0.8
전북	0.1	1.2	0.0	-0.5	-0.3	1.1	-1.6	-0.6	0.5
전남	-0.1	-1.8	0.1	-1.2	-0.1	4.5	-1.6	-0.2	0.2
경북	0.6	1.4	-1.4	-0.1	-2.1	2.8	-2.2	0.4	0.8
경남	-1.2	-0.7	0.2	0.1	-0.6	0.3	2.0	-0.5	0.3
제주	0.1	0.5	-1.5	0.0	-0.6	4.7	-0.8	-0.7	-1.7

- 주 : 직업별로 전체 비율보다 낮은 지역을 다른 색으로 표시함.

6) 주당 노동시간

○ 2020년 기준 주당 노동시간별 전국 여성노동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35~40시간(47.0%) > 35시간미만(29.3%) > 41~52시간(16.8%) > 53시간이상(6.9%) 순으로 많고, 남성은 35~40시간(48.4%) > 41~52시간(26.9%) > 35시간미만(13.5%) > 53시간이상(11.2%) 순으로 많음. 만18세 미만 노동자를 포함한 법정노동시간 30~40시간이 여성·남성 모두 1순위로 많지만, 여성의 경우 35시간미만이 남성보다 큰 차이로 많고 남성은 41~52시간과 53시간이상 비율이 여성보다 많음.

〈표 16〉과 같이 2020년 기준 지역별로 35시간미만 여성 비율이 전국 비율보다 높은 곳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개 지역이고, 이 중 법정노동시간 35~40시간의 전국 비율보다 낮은 지역으로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개 지역이 꼽힘.

<표 16> 2020년 주당 노동시간별 여성, 남성 노동자 비율(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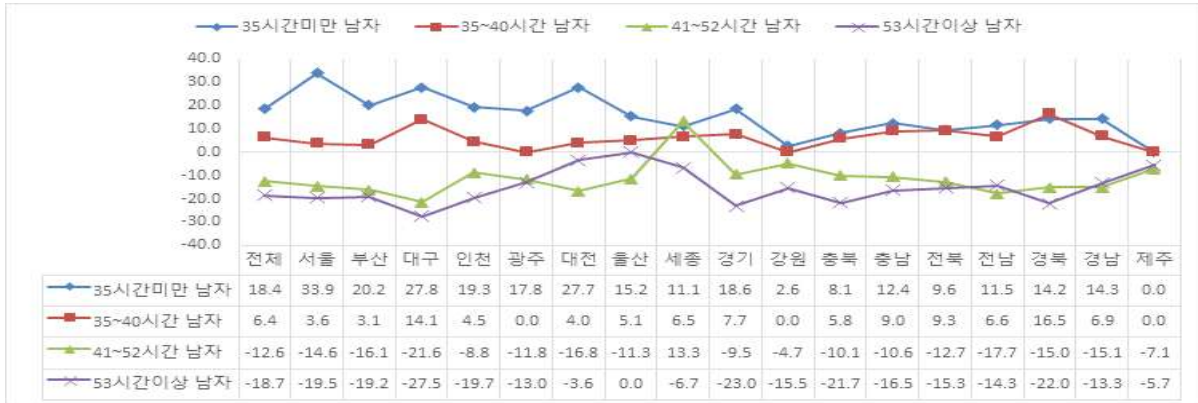
	여성				남성			
	35시간 미만	35~40시간	41~52시간	53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35~40시간	41~52시간	53시간 이상
전체	29.3	47.0	16.8	6.9	13.5	48.4	26.9	11.2
서울	25.7	51.3	16.9	6.0	12.5	51.4	26.1	10.1
부산	30.6	44.9	16.4	8.2	15.8	47.6	25.4	11.2
대구	29.9	47.1	16.7	6.3	14.9	48.8	26.7	9.7
인천	28.1	47.6	17.0	7.4	11.9	47.6	27.0	13.4
광주	29.5	45.0	19.4	6.0	13.0	46.3	29.3	11.4
대전	28.0	48.6	16.6	6.7	13.6	47.4	26.9	12.1
울산	32.7	39.1	20.5	7.6	10.8	47.1	31.6	10.5
세종	25.1	48.0	20.2	6.6	9.0	46.0	32.1	12.9
경기	27.5	50.2	16.5	5.8	11.9	51.0	27.0	10.1
강원	34.5	42.3	14.8	8.4	17.7	45.9	22.8	13.5
충북	30.0	46.1	16.9	7.0	13.4	47.2	28.6	10.8
충남	31.0	41.1	19.5	8.4	14.1	44.6	27.6	13.6
전북	34.1	45.6	14.2	6.1	17.2	48.7	24.7	9.4
전남	37.3	39.4	16.1	7.1	17.6	47.1	24.5	10.9
경북	31.4	43.3	16.6	8.7	14.5	45.7	26.5	13.2
경남	32.5	42.2	16.8	8.5	14.4	42.0	29.7	13.8
제주	30.5	40.3	18.4	10.8	18.7	38.7	26.0	16.6

- 주 : 성별로 전체 비율보다 높은 지역을 다른 색으로 표시함.

○ [그림 8]과 같이 2019년과 2020년의 주당 노동시간별 전국 성별 노동자 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남성 모두 35시간미만과 35~40시간에서 증가했고 41~52시간, 53시간이상에서 감소했음. 이와 같은 특징은 남성의 경우 지역별로도 동일한 반면 여성의 경우 다르게 나타남. 여성은 부산, 울산, 강원, 경남 4개 지역에서 35시간미만은 증가한 반면 나머지 노동시간대에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2019-2020년 주당 노동시간별 성별 노동자 수 증감변화(단위: %)





7) 최저임금 준수

○ <표 17>과 같이 2020년 기준 여성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비율은 81.6%이고 남성은 91.6%로 나타나 여전히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낮음. 지역별로 최저임금 준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 대전, 울산, 세종, 경기 5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역은 전국 비율보다 낮고, 그 중 강원이 73.4%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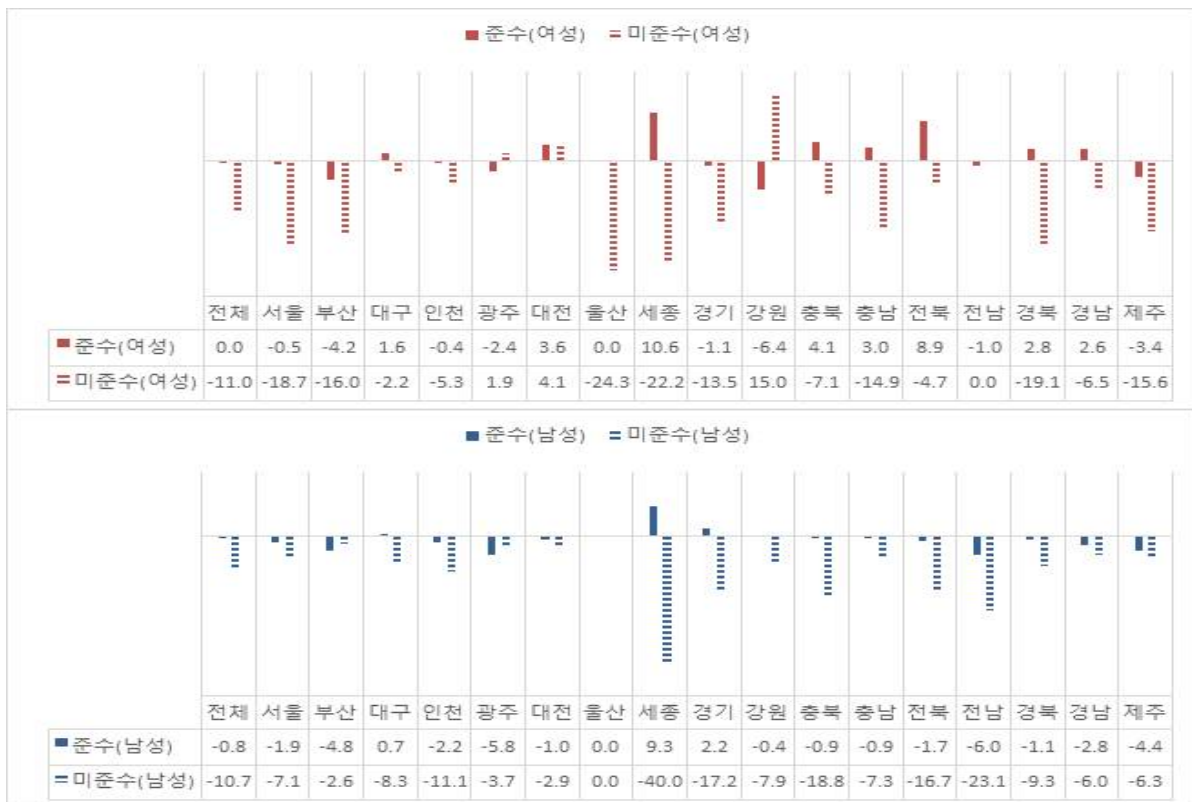
<표 17> 2020년 성별 최저임금 준수·미준수 비율(단위: %)

	여자		남자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전체	81.6	18.4	91.6	8.4
서울	85.4	14.6	91.6	8.4
부산	78.3	21.7	88.7	11.3
대구	77.5	22.5	90.9	9.1
인천	80.9	19.1	90.5	9.5
광주	79.4	20.6	91.4	8.6
대전	81.8	18.2	90.4	9.6
울산	83.2	16.8	94.2	5.8
세종	88.0	12.0	96.0	4.0
경기	84.5	15.5	93.3	6.7
강원	73.4	26.6	87.9	12.1
충북	81.3	18.7	92.5	7.5
충남	81.5	18.5	91.7	8.3
전북	78.3	21.7	90.6	9.4
전남	73.6	26.4	90.9	9.1
경북	76.7	23.3	90.5	9.5
경남	77.4	22.6	90.9	9.1
제주	76.3	23.7	87.5	12.5

- 주 : 성별로 전체 비율보다 높은 지역을 다른 색으로 표시함.

○ [그림 9]와 같이 2019년과 2020년의 성별로 최저임금 미준수 비율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최저임금 미준수 감소율이 높음. 이것은 저임금 여성노동자가 남성보다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최저임금 미준수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하지만 지역별로 최저임금 준수와 미준수 증감률은 다르게 나타남.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남, 제주 8개 지역은 여성노동자의 최저임금 준수율이 감소하고, 광주, 대전, 강원 3개 지역은 최저임금 미준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9] 2019-2020년 최저임금 준수·미준수 성별 노동자 수 증감변화(단위: %)



3. 나가며

○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노동자 규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2019년과 2020년 1년 간 경제활동인구 수, 취업자 수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게 감소하고 남성보다 여성 실업자 수도 더 많이 증가해 코로나19 시기 여성의 노동 위기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대로는 50대 이하의 여성노동자 수 감소율이 크고, 특히 30대 이하의 청년층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함. 여성 실업률도 모든 연령대에서 크게 증가하고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가 높게 나타남.

- 종사상지위에서 여성 임시·일용직과 비임금노동의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노동 위기가 크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음. 마찬가지로 2019년과 2020년의 고용형태별 감소 현황에서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감소율이 크게 나타남.

- 산업별로는 코로나19 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서비스 업종에서 여성의 고용 감소가 크게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직업별에서도 판매직과 서비스직에서 높은 감소율을 보임.

- 주당 노동시간은 35시간 미만이 크게 증가하고, 41~52시간, 53시간이상은 크게 감소함. 최저임금에서 미준수 비율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최저임금 준수 비율은 크고 미준수 비율이 낮음.

○ 전국 기준의 여성 노동 현황이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한편,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 여성노동자의 증감 현황은 동일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남. 노동 지표별로 여성 노동 위기가 전국 기준 감소율보다 더 나쁘게 나타난 곳도 있고 여성노동자 수가 증가하는 곳도 있음.

- 구체적으로 전국 여성 기준보다 더 나쁘게 나타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국 여성 경제활동인구 수 감소율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지역은 부산, 울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제주 7개 지역이고, 여성 취업자 수는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강원, 경북 6개 지역에서 전국 감소율보다 더 크게 감소함. 여성 실업자의 경우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북, 경북, 제주 8개 지역이 전국 실업자 증가율보다 더 많이 증가함.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모두에서 전국 여성 증감률보다 더 나빠진 지역은 울산, 경기, 경북 3개 지역으로 꼽힘.

- 연령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여성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전국 감소율보다 더 크게 감소한 곳은 부산, 인천, 울산, 강원, 경북 5개 지역이고, 50대이하 연령대 모두 감소한 지역은 부산, 울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6개 지역임. 60대이상의 경우 서울, 세종 2개 지역만이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감소하고 있음. 실업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한 지역은 서울, 인천, 울산, 경기, 경북 5개 지역으로 나타남.

- 종사상지위별로 여성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모두 감소하는 지역은 부산, 울산, 경기, 강원, 경북 5개 지역이고,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감소하는 지역은 부산, 울산, 경기, 경북 4개 지역으로 나타나 부산, 울산, 경기, 경북 4개 지역이 코로나19 시기 여성 노동 위기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주당 노동시간별 현황에서 35시간미만 만이 증가하고 나머지 노동시간대는 모두 감소하는 지역은 부산, 울산, 강원, 경남 4개 지역이고, 최저임금 지표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남, 제주 8개 지역은 여성노동자의 최저임금 준수율이 감소하고 광주, 대전, 강원 3개 지역은 최저임금 미준수 비율이 증가함.

○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별로 여성 노동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 노동 지표의 통계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여성 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통계 지표를 생산하여 지역의 여성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